

JOURNAL OF HUMANITIES

人文論叢

79권 4호 2022년 11월

vol. 79, no. 4, November 202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문논총 79권 4호(2022. 11. 30)

/

차례

기획논문 1 몸의 경계, 제국의 경계

- 19세기 영국 백신반대 부모의 시민됨과 “매독 아이” 김혜주 | 7
- 취한 영국 정서현 | 37
- 윌키 콜린스의 『월장석』에 나타난 반-과학의 집단성
- 여성화, 끝나지 않는 기획 조선정 | 69
- 『제인 에어』의 가정과 제국
- 피 흘리는 뱀파이어(와) 어머니의 몸 한희승 | 101
- 르 파누의 「카밀라」에서 재현되는 아브젝트로서 어머니의 몸

기획논문 2 반지성주의를 묻다

- 고대 그리스 반지성주의 연구 김 현 | 137
- 인도 근대 ‘힌두교’ 만들기와 인도식 세속주의의 맥락 강성용 | 167
- 왜 인도에서는 반지성주의가 문제되지 않는지를 묻는다
- 누가 내 몸을 치료할 것인가? 전통의학의 경험과 지식의 경계 김성수 | 211
- 경험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시선

- 일반논문 중립 지향의 재일조선인사의 기원을 찾아서 임경화 | 249
- 북구의 언어학자 조승복의 어떤 전후사

	정우희 국회의원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와 조선사회	이형식 283
	‘포어라움’(Vorraum)의 간접권력에 대해	윤인로 323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병리현상으로서의 물화	정태창 357
서평	한국적 ‘신냉전사’의 가능성	권혁은 397
	허은(2022), 『냉전과 새마을: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체제』, 창비, 596쪽	
	기억과 기획의 동아시아	장지영 411
	백영서(2022),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 나남출판, 304쪽	
	가려진 것은 얼굴만이 아니다:	최은경 425
	팬데믹이 드러낸 마스크의 물질 문화적 지형들	
	현재환·홍성욱 엮음(2022), 『마스크 파노라마: 흑사병에서 코로나 19까지』, 문학과 지성사, 290쪽	

Journal of Humanities
Vol. 79 No. 4, November 2022

/
Contents

Special Topic 1: Writing Borders in Bodies and Empire

Anti-Vaccination Parent's Citizenship and the "Syphilitic Child"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Kim, Haejoo | 7

Britain Under the Influence

Anti-Science Collectivity as Knowledge in Wilkie Collins's *The Moonstone*

Jung, Seohyon | 37

Unfinished Business of Feminization

Domesticity and Empire in *Jane Eyre*

Cho, Sonjeong | 69

Bloody Vampire (and) Mother's Body

The Representation of the Mother's Body as an Abject in Le Fanu's "Carmilla"

Han, Heeseung | 101

Special Topic 2: Inquiring Anti-Intellectualism: Diverse Contexts and Aspects

A Study on Anti-Intellectualism in Ancient Greece

Kim, Heon | 137

Reconstruction of 'Hinduism' and Indian Secularism

Limitation of Anti-Intellectualism Frame in the Analysis of Indian Political Landscape

Kang, Sung Yong | 167

Who Will Heal My Body? At the Border of Traditional Medicine's Experience and Knowledge

Physician and Patient Perspective on Choice and Experience

Kim, Seong-Su | 211

Articles

In Search of Neutrality-Oriented Zainichi History
A Post-war History of Cho Seung-Bog, a Korean from Manchuria
Lim, Kyounghwa | 249

Siyukai Representative Eihu Moriya and Colonial Chosen Society
Lee, Hyoungsik | 283

On the Indirekter Power of ‘Vorraum’
Yoon, Inro | 323

Reification as a Pathology of Capitalist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Jung, Taechang | 357

Book Reviews

Pave the Way for the New Cold War History of Korea
Review of *Cold War and Saemaeul: The Chain of Cold War in East Asia and the System of Divided Nation* by Heo, Eun
Kwon, Hyuk Eun | 397

East Asia as Memories and Projects
Review of *The Genealogy and Prospects of East Asia Discourse: The Way to an Alternative System* by Baik, Youngseo
Chang, Jiyoung | 411

The Unmasked Things: Material Cultural Landscapes of Masks in Pandemic
Review of *Mask Panorama: Science and the Politics of Masks from the Black Death to COVID-19* by Hyun, Jaehwan and Hong, Sungook
Choi, Eun Kyung | 425

人文論叢

79권 4호

2022년 11월

기획 논문 1

기획의 말

/

몸의 경계, 제국의 경계

이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도착했다. 마스크 착용과 백신접종에 관한 사회적 논쟁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우리는 19세기 영문학 연구자로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만났던 일련의 관련 주제들, 가령 오염에 대한 공포, 의료 담론의 폭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부상, 질병의 인종화, 제국주의의 정치경제학 등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몸’을 둘러싼 침예한 불안이 19세기 영국문학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추적하는 것이 지금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다.

영문학 연구에는 팬데믹 서사를 다룬 오랜 전통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국가와 몸의 관계에 천착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영문학자 프리실라 월드는 질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떤 몸에서 어떤 몸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이해되는지, 건강한 몸과 위험한 몸의 구분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전염 서사’ 틀에서 분석한 바 있다.¹ 몸의 서사화는 인종정치를 강화하고 제국주의 질서를 정당화한다. 몸의 서사화에 제국의 상상력이 기입되는 것은 젠더 정치의 맥락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몸, 질병, 국가에 관한 담론은 젠더를 경유하며 의미화된다. 제국의 상상력은 언제나, 이미, 젠더화된 언어로 재현된다.

1 Priscilla Wald, *Contagious: Culture, Carriers, and the Outbreak Narrativ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정보가 불충분하던 팬데믹 초기에 막연한 불안과 공포로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아 낙인을 찍고 혐오를 조장하던 몇몇 국지적 사건들을 돌아보면, 현재 비교적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코로나 시대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상황에 안도하게 된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질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여전히 오랜 국제 정치의 역동과 자본의 흐름에 따른 선별적인 포용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는 지배의 논리가 작동한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세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연구를 이어오면서 몸과 제국의 이야기가 결국 경계에 대한 사유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몸, 개인, 가정, 국가의 경계는 어떻게 재현되는가? 경계는 어떻게 생산되고 움직이고 지속가능해지는가? 이런 질문을 변주하고 확장하면서 “몸의 경계, 제국의 경계”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19세기 영문학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기에 수록된 네 편의 논문은 각 연구자의 오랜 관심사를 공동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결합하여 발전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주의 논문은 영국에서 19세기 후반 영유아의 천연두 백신접종에 반대하는 운동이 차용했던 매독 전염의 수사학이 천연두가 아닌 백신 자체를 비영국적인 것으로 인종화하고 또 국가주도 공중보건을 전제주의로 치환함으로써 이중적인 타자화의 논리를 구사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백신부작용으로 거론된 매독의 전염을 둘러싼 담론을 통해 백신반대에 스민 당대 의료자유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모 됨’의 정치와 결부된 시민권 투쟁의 일면을 포착한다. 결국 부모와 아이의 혈연과 소유로 얽힌 관계가 빅토리아시대 시민권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을 논증한다.

정서현의 논문은 윌키 콜린스의 『월장석』이 추리소설 플롯에 전제된 서사적 만족감과 과학적 앎을 복잡하게 비트는 작품이라고 해석한다. 범죄의 핵심에 식민지 인도에서 들어온 신비의 월장석이 있고 그것을 훔친 영

국 신사가 일시적으로 아편에 취해서 그랬다는 사실이 사회적 관용을 보장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서사의 논리는 이성, 과학, 논리의 기치로 세계를 지배한 영국제국의 무의식에 자리한 불안과 불신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설에 편재한 “취한 상태”의 일상성에 주목하여, 반-과학 정서가 강력한 집단적 인식론으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을 제국주의의 병리로 짚어 낸다.

조선정의 논문은 널리 알려진 고전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가정과 제국의 상호침투와 그 폭력성을 기록한 연대기로 다시 읽는다. 학계 안팎으로 널리 알려진 고전인 만큼 젠더와 제국주의의 재현에 대한 방대한 비판적 독해가 있었고 그 결과 더 이상 페미니스트 성장소설로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논문은 페미니스트비평, 신역사주의, 탈식민주의비평이 교차하는 비평 지형을 ‘여성화’의 맥락으로 재해석하고, 여성화로 포섭되지 않는 여성주체의 유동성, 이동성, 경계성에 주목한다. 가정여성이라는 주체모델이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수행의 구성물로 반복 재현되는 것임을 밝히고, 거기서 여성주체의 탈주 가능성을 읽어 낸다.

한희승의 논문은 뱀파이어 서사의 계보에 속하는 조세프 세리단 르 파누의 중편 「카밀라」가 레즈비언로맨스로 읽혀 온 전통에 거슬러 모성의 이야기로 재해석한다. 뱀파이어를 재생산하는 어머니의 형상에 주목할 때 몸, 친밀성, 관계성에 관한 관습적인 사고에 도전하고 또한 생명에 관한 인식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는 ‘어머니 뱀’의 과정을 삶과 죽음, 오염과 정화, 괴물과 인간의 경계를 다시 쓰는 전복적 주체화로 해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국의 어머니라는 허상의 자리에 제국주의의 논리를 교란하는 뱀파이어를 기입한다.

이상 네 편의 논문은 각각 다양한 쟁점을 다루면서도 느슨하게 연결된 공통의 주제의식을 심화한다. 19세기 영국문학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가늠해 보는 작은 척도로 쓰임새를 가지기를 바란다. 또한 경계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의 확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조선정

